

# A Comparison of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between Mothers of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Min Young Kim<sup>a</sup>, Kyungjae Lee<sup>b</sup>

<sup>a</sup>Graduate Program in Department of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Korea

<sup>b</sup>Department of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 Korea

Correspondence: Kyungjae Lee, PhD

Department of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13-13 Hayang-ro, Hayang-eup, Gyeongsan 38430, Korea  
Tel: +82-53-850-2543  
Fax: +82-53-359-6780  
E-mail: kjlee0119@cu.ac.kr

Received: July 8, 2019

Revised: August 22, 2019

Accepted: August 24, 2019

**Objectives:** It is believed that parents' involvement in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who stutter (CWS) is essential because they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on CW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CWS to be more fluent by changing their environment. However there is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us of causality of Korean mothers of CWS, which would be an indicator of the stuttering treatment progress. The primary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such intern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of CWS in order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to pl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of CWS. **Methods:** A total of 15 mothers of CWS and 15 mothers of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NS) took part in this study. Internal characteristics, such as locus of causality (Origin and Pawn), locus of control, communication attitude, and anxiety were measured. **Results:** Among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nly the Pawn scores and trait anxiety scor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In addition, the anxiety score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ocus of control scores for mothers of CW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igher Pawn scores would be a typical characteristic for people who stutter and their families.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help mothers of CWS to be more agentic in the stuttering treatment through counseling and other approaches.

**Keywords:** Stuttering, Mothers, Locus of causality, Internal characteristics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은 개인에 따라 말의 비유창성, 그리고 이에 대한 행동적, 감정적, 인지적 반응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에 평가와 치료 역시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아동의 부모를 말더듬 평가와 치료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동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들의 환경 등을 변화시키는 데 부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Guitar, 2014; Manning, 2010).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치료는 치료 대상과 목표에 따라서 간접 치료와 직접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치료 전략의 차이와 상관없이 부모가 말더듬아동의 치료에 참여하여 말더듬아동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아동의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Guitar, 2014; Manning, 2010). 말더듬아동의 치료 전략 중 하나인 상호작용 치료에서는 말더듬아동의 부모는 치료사의

도움으로 아동과의 상호작용 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Millard, Nicholas, & Cook, 2008). 또한 요구-용량 모델에 근거한 치료에서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유창성을 저해하는 요구를 낮추고 유창성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Gottwald, 2010). 이처럼 말더듬아동의 부모는 치료사와 함께 아동의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말더듬아동의 부모는 치료에 참여하면서 아동의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내적 특성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말더듬아동의 부모가 상호작용 치료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말더듬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으며, 부모 자신의 변화가 아동의 변화에 원인이 되었다는, 즉 주체의식이 증가하였다

는 보고가 있었다(Lee, Shin, & Chon, 2011). 이와 유사한 특성의 변화는 리드콧 치료를 경험한 말더듬아동의 부모에게서도 보고되었는데(Hayhow, 2009),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치료에 참여하면서 부담감 등을 느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주체의 식의 향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료 중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말더듬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주체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된 것이 바로 내용분석에 근거한 인과소 분석이다. 내용분석의 기본 가정은 참여자의 심리적 특성이 참여자가 사용하는 말 혹은 글에 나타난다는 것이며, 이에 특정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의 수를 바탕으로 그러한 심리특성을 타당성 있게 측정하는 절차를 제공한다(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또한 인과소란 행동의 원인의 위치에 대한 믿음이며 크게 오리지(Origin)과 폰(Pawn)으로 구성된다(Westbrook & Viney, 1980). 오리지(Origin)는 대상자가 스스로 원해서 특정 행동을 하였다고 믿는 상황 혹은 사람이며, 폰은 외부의 영향 혹은 운 등에 의해 특정 행동을 하였다고 믿게 되는 상황 혹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과소를 내용분석을 통하여 측정할 결과, 국내외의 말더듬성인은 일반성인과 비교, 높은 폰 점수를 보였다(Lee, Manning, & Herder, 2011, 2015; Shin et al., 2015). 또한 치료를 통하여 말더듬성인은 이러한 인과소 점수에서 변화를 보였다(Lee, Manning et al., 2011, 2015; Shin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높은 폰 점수가 말더듬성인의 주요한 특성일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한 이러한 특성의 변화가 내용분석을 통하여 민감하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분석을 이용한 인과소의 측정은 국내에서는 아직 말더듬성인 혹은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으며 학령전기 아동의 영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Lee, 2017; Shin & Lee, 2014; Shin et al., 2015). 특히 전술하였듯이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경우, 아동 자신뿐 아니라 부모가 치료에서 중요할 수 있으나 말더듬아동의 부모가 어떠한 양상으로 인과소를 보이는지와 관련된 국내의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에 말더듬아동의 부모가 어떠한 양상으로 인과소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말더듬아동을 중재하는 치료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효과적인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근거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과소와 더불어 말더듬아동 부모의 다양한 내적 특성 역시 이후의 효율적인 치료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부족한 편이다. 말더듬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발달적인 원인 등이 모두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Guitar, 2014; Manning, 2010). 부모의 내적 특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말더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Guitar, 2014). 예를 들어 국내 말더듬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기질적 특성을 살펴본 Lee와 Sim (2007)은 일부 기질 영역 중에서 말더듬아동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와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말더듬아동의 불안점수는 어머니의 불안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Kim, Lee, & Sim,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부모의 인과소뿐 아니라 전반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태도, 행동통제소, 불안 등과 같은 내적 특성이 일반아동 부모와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내적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말더듬 발생에 이러한 부모의 내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어머니 15명(평균연령 36.5세, SD=1.0), 학령전기 일반아동 어머니 15명(평균연령 34.5세, SD=1.3), 총 3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말더듬을 포함하는 말과 언어문제, 인지 및 심리문제, 행동 및 정서문제 등이 없었다고 자기보고하였다. 말더듬아동 어머니 15명 중 6명은 주부, 9명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일반아동 어머니 15명 중 3명은 주부, 12명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말더듬아동(남 10명, 여 5명; 평균연령 4.3세, SD=0.89)의 경우, 부모가 말더듬으로 보고하였으며,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사가 말더듬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II (Paradise-Fluency Assessment-II, P-FA-II; Sim, Shin, & Lee, 2010) 결과, 중증도가 모두 '중간' 이상이었다. 이 중 5명의 말더듬아동은 말더듬 관련 언어치료(평균 치료기간 6.6개월, SD=4.34)를 받고 있었으며 10명의 말더듬아동은 본 연구 참여 이전에 말더듬치료 경험이 없었다. 일반아동(남 8명, 여 7명; 평균연령 4.3세, SD=1.49)의 경우, 어머니 보고에 의하면 말, 언어문제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언어평가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이었다. 또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은 모두 어머니 보고에 의하면 언어, 인지, 심리 등 기타 다른 장애가 없는 아동이었다.

### 평가도구 및 실험방법

모든 실험은 조용한 장소에서 실험자와 참여자 1:1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설명

서(No. CUIRB-2018-0013)를 읽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인과소 측정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주제의 글쓰기를 하였다(Shin et al., 2015). 두 가지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일반적인 주제)과 최근 의사소통 경험(의사소통 주제)이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주제는 무순으로 제시되었다. 참여자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10분씩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였다.

이후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감을 살펴보는 평가도구인 P-FA-II 의사소통태도 평가(Sim et al., 2010), 통제소를 살펴보는 평가도구인 행동통제소검사(Locus of Control of Behavior, LCB; Craig, Franklin, & Andrews, 1984), 특성으로의 불안과 상태 불안을 측정하는 평가도구인 상태-특성불안 측정도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를 실시하였다.

### 분석방법

우선 인과소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의 글 자료는 내용분석 도구인 오리진-폰 분석도구(Shin et al., 2015)의 절차를 따라서 분석하였다. 우선 글 자료의 길이를 어절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어절의 수를 이후 오리진과 폰 점수를 보정하는 데 사용하였다(Shin et al., 2015).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일반적인 주제 글의 어절수는 68.8 (SD=36.8), 의사소통 주제 글의 어절수는 68.6 (SD=28.2)이었다. 또한 일반아동 어머니의 일반적인 주제 글의 어절수는 109.2 (SD=84.7), 의사소통 주제 글의 어절수는 82.8 (SD=42.8)이었다. 이러한 어절수가 주제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과 주제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 또한 이전 국내연구에서는 최소 50어절 이상의 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Shin & Lee, 2014)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오리진-폰 분석도구의 기본 분석기준은 절(clause)이기에 글 자료를 절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절이 대상자의 오리진 특성, 혹은 폰 특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글 작성자의 행동 혹은 감정이 의도, 노력, 능력 등으로 인하였으며 능력에 대한 인식 등이 절에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예: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 공인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그러한 절을 오리진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글 작성자의 행동 혹은 감정이 우연히, 혹은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으며 능력의 부족 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절은 폰으로 분석하였다(예: 항상 바쁜 직장 생활로 저희 아들과는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합니다). 하나의 절이 오리진 혹은 폰, 두 가지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두 가지 인식 중 그 어떤 인식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면, 그 절은 오리진 혹은 폰, 그 어떤 것으로도 분석하지 않았다.

다. 이렇게 오리진 절과 폰 절의 수는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변환방법을 거쳐 오리진 점수와 폰 점수로 변환되었으며 변환공식은 다음과 같다(Shin & Lee, 2014).

$$\text{길이보정계수} = (1 / \text{자료의 어절수}) \times 100$$

$$\text{오리진 점수} = \sqrt{(\text{오리진 절수} + 0.5) \times \text{길이보정계수}}$$

$$\text{폰 점수} = \sqrt{(\text{폰 절수} + 0.5) \times \text{길이보정계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주제와 의사소통 관련 주제, 두 가지 글 자료를 분석하여 각각 일반적인 인과소 점수와 의사소통 관련 인과소 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글 자료에서 산출된 일반적인 인과소와 의사소통 인과소의 상대적인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오리진-폰 점수 비율을 산출하였다(Shin et al., 2015). 오리진-폰 점수 비율은 각각의 상황에서의 오리진 점수를 폰 점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오리진-폰 점수 비율이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큰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리진 성향을, 100 이하의 경우 상대적으로 폰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별 글 자료 분석의 경우, 두 명의 분석자의 합의 과정을 통하였다. 우선 제1저자는 이전 인과소 연구분석 경험이 있는 제2연구자로부터 인과소 분석훈련을 받았으며 이후 개별적으로 모든 글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명의 분석자가 모두 오리진 혹은 폰으로 분석한 경우, 각기 오리진 혹은 폰으로 분석하였으며, 불일치가 나타난 절의 경우, 합의 과정을 거쳐서 각기 오리진 혹은 폰으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태도 평가는 총 30문항의 예/아니오 검사로 말더듬성인이 대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대답한 문항에 1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에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낸다(Sim et al., 2010). 행동통제소검사는 라이케르트 척도로 이루어진 총 17문항의 검사이며 11문항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고 여섯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고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외재적 통제소를 나타낸다(Craig et al., 1984). 상태-특성불안 측정도구는 4점 척도로 구성된 상태불안을 나타내는 20문항, 특성불안을 나타내는 20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 척도의 경우 10개 항목, 특성불안 척도의 경우 7문항을 역으로 채점하여 각 척도별로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불안 정도를 나타낸다(Spielberger et al., 1970).

### 신뢰도 및 통계분석

본 연구 참여자 30명의 글쓰기 자료 중 20% 이상인 6명의 글쓰기 자료를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자 간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Cohen's kappa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오리진의 경우 .879, 폰의 경우 .949

**Table 1.** Results of Origin and Pawn for mothers of CWS and CWNS

|                              | Mothers of CWS | Mothers of CWNS |
|------------------------------|----------------|-----------------|
| General scores               |                |                 |
| Origin                       | 1.68 (0.62)    | 1.65 (0.50)     |
| Pawn                         | 1.57 (0.43)    | 1.33 (0.44)     |
| Origin-Pawn ratio            | 115.87 (58.12) | 141.77 (78.89)  |
| Communication-related scores |                |                 |
| Origin                       | 1.54 (0.59)    | 1.54 (0.56)     |
| Pawn                         | 1.59 (0.56)    | 1.22 (0.44)     |
| Origin-Pawn ratio            | 107.12 (51.36) | 146.73 (88.53)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Table 2.** Mixed analysis of ANOVA results for Origin scores, Pawn scores, and Origin and Pawn ratios

|                    | SS          | df | MS         | F      |
|--------------------|-------------|----|------------|--------|
| Origin scores      |             |    |            |        |
| Between groups     |             |    |            |        |
| Group (A)          | .002        | 1  | .002       | .006   |
| Error              | 10.730      | 28 | .383       |        |
| Within group       |             |    |            |        |
| Writing topic (B)  | .246        | 1  | .246       | .904   |
| A×B                | .005        | 1  | .005       | .017   |
| Error              | 7.619       | 28 | .272       |        |
| Pawn scores        |             |    |            |        |
| Between groups     |             |    |            |        |
| Group (A)          | 1.328       | 1  | 1.328      | 6.832* |
| Error              | 5.444       | 28 | .194       |        |
| Within group       |             |    |            |        |
| Writing topic (B)  | .024        | 1  | .024       | .096   |
| A×B                | .060        | 1  | .060       | .240   |
| Error              | 7.050       | 28 | .252       |        |
| Origin-Pawn ratios |             |    |            |        |
| Between groups     |             |    |            |        |
| Group (A)          | 16,096.538  | 1  | 16,096.538 | 2.556  |
| Error              | 176,317.560 | 28 | 6,297.056  |        |
| Within group       |             |    |            |        |
| Writing topic (B)  | 53.803      | 1  | 53.803     | .014   |
| A×B                | 704.703     | 1  | 704.703    | .184   |
| Error              | 106,972.294 | 28 | 3,820.439  |        |

\* $p < .05$ .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오리진 점수, 폰 점수, 오리진-폰 점수 비율이 집단(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과 상황별(일반적인 점수와 의사소통 관련 점수)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혼합요인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집단 사이에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행동통제소와 의사소통태도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

**Table 3.** Intrinsic feature of mothers of CWS and CWNS

|                              | Mothers of CWS | Mothers of CWNS | t(28)  |
|------------------------------|----------------|-----------------|--------|
| State anxiety                | 40.40 (8.05)   | 35.47 (6.57)    | 1.839  |
| Trait anxiety                | 41.73 (7.82)   | 35.60 (3.98)    | 2.706* |
|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 32.07 (6.68)   | 27.60 (6.13)    | 1.908  |
| Communication attitude test  | 7.33 (6.33)    | 5.53 (3.98)     | .932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 $p < .05$ .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인과소 결과와 다른 내적 특성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집단별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

### 상황과 집단에 따른 인과소 차이

본 연구 참여자인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오리진 점수, 폰 점수, 오리진-폰 점수 비율과 혼합요인분산분석 결과는 Tables 1, 2와 같다.

일반적인 오리진 점수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68점(SD = 0.62), 일반아동 어머니는 1.65점(SD = 0.50)이었다. 의사소통 관련 오리진 점수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54점(SD = 0.59), 일반아동 어머니는 1.54점(SD = 0.56)이었다. 이러한 오리진 점수가 집단과 상황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혼합요인분산분석을 한 결과, 우선 집단과 상황의 교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_{(1,28)} = .017, p = .897$ ). 또한 집단에 따른 차이( $F_{(1,28)} = .006, p = .941$ ), 상황에 따른 차이( $F_{(1,28)} = .904, p = .350$ )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폰 점수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57점(SD = 0.43), 일반아동 어머니는 1.33점(SD = 0.44)이었다. 의사소통 관련 폰 점수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59점(SD = 0.56), 일반아동 어머니는 1.22점(SD = 0.44)이었다. 이러한 폰 점수의 경우 집단과 상황 사이의 교호작용( $F_{(1,28)} = .240, p = .628$ ), 상황에 따른 차이( $F_{(1,28)} = .096, p = .759$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하지만 집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28)} = 6.832, p = .014$ ). 즉 말더듬아동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높은 폰 점수를 보였다.

일반적인 오리진-폰 점수 비율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15.87점(SD = 58.12), 일반아동 어머니는 141.77점(SD = 78.89)이었다. 의사소통 관련 오리진-폰 점수 비율의 경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107.12 (SD = 51.36), 일반아동 어머니는 146.73 (SD = 88.53)이



**Table 4.**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locus of causality scores and other intrinsic feature scores for mothers of CWS and CWNS

|  | Mothers of CWS       | Mothers of CWNS      |
|--|----------------------|----------------------|
| State anxiety &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 $r = .430, p = .018$ | -                    |
| Trait anxiety &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 $r = .549, p = .002$ | -                    |
| State anxiety & Trait anxiety                | $r = .743, p = .001$ | $r = .615, p = .015$ |

었다. 이러한 오리지널-폰 점수 비율의 경우 집단과 상황 사이의 교호 작용, 집단에 따른 차이, 상황에 따른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 기타 내적 특성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상태 불안과 특성불안 점수, 행동통제소 점수, 의사소통태도 점수 등의 기타 내적 특성 평균점수와 *t*-test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우선 특성불안 점수는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41.73점( $SD = 7.82$ ), 일반아동 어머니는 35.60점( $SD = 3.987$ )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28) = 2.706, p = .011$ ).

반면 상태불안 점수는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40.40점( $SD = 8.05$ ), 일반아동 어머니는 35.47점( $SD = 6.57$ )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행동통제소 점수는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32.07점( $SD = 6.68$ ), 일반아동 어머니는 27.60점( $SD = 6.13$ )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의사소통태도 점수는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7.33점( $SD = 6.33$ ), 일반아동 어머니는 5.53점( $SD = 3.98$ )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 인과소 평가도구와 다른 도구와의 상관관계

말더듬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인과소 결과가 다른 내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4). 말더듬아동 부모의 경우, 인과소 점수는 다른 내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상태불안 점수는 행동통제소 점수( $r = .430, p = .018$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성불안 점수는 행동통제소 점수( $r = .549, p = .002$ ), 상태불안 점수( $r = .743, p = .001$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외재적 통제소를 보일수록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일반아동 부모의 경우, 인과소와 다른 내적 특성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상태불안과 특

성불안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 $r = .615, p = .015$ )가 관찰되었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어머니가 인과소와 기타 다른 내적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폰 점수와 특성불안을 보였으며 기타 다른 인과소와 내적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인과소는 기타 다른 내적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통제소와 불안점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말더듬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인과소 차이

본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보다 높은 폰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높은 폰 성향이 말더듬는 사람과 그 가족의 대표적인 특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술하였듯이 국내외 여러 연구들이 말더듬성인이 일반성인보다 높은 폰 점수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Lee, Manning et al., 2011, 2015; Shin & Lee, 2014; Shin et al., 2015). 이러한 높은 폰 성향은 말더듬성인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 혹은 운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능력의 부족 등을 인식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과소를 의사소통 인과소와 일반적 인과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상관없이 일반아동 어머니보다 높은 폰 점수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아동의 어머니는 자신의 의사소통과 일반적인 상황 모두에서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말더듬성인의 경우, 오랜 말더듬 경험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폰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말더듬에 대하여 자책감 등을 보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말더듬에 대한 부모의 어찌할 바 모름과 지식 부족, 말더듬 관리 관련 능력 부족 및 책임감 회피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Guitar, 2014; Manning, 2010)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높은 폰 성향을 보이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에서는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상황에서 측정된 인

과소에서 모두 높은 폰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말더듬아동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기에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도 높은 폰 성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오리진 점수와 오리진-폰 점수 비율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과소의 다면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자신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오리진에서는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오리진과 폰 점수 패턴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는 일반아동 어머니의 오리진-폰 점수 비율이 말더듬아동 어머니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오리진과 폰이 역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닌 다면적인 특성을 보이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에 의한 부모의 인과소 변화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말더듬성인이 일반성인과 비교, 오리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연구자는 이를 치료 동기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Shin et al., 2015).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어머니 참여자의 경우 일부(5명)는 치료경험이 있기에 이와 같은 요인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우선 후속연구에서는 치료경험을 통제하여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인과소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말더듬치료를 통하여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아동의 변화의 주체가 어머니 자신이라는 생각, 즉 변화의 주체의식의 강화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더듬성인의 주요 치료변화의 지표가 오리진의 향상과 폰의 감소이기에 말더듬아동 어머니 역시 치료를 통하여 오리진의 향상과 폰의 감소를 보이는지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오리진에서도 치료를 통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기타 내적 특성 차이와 상관관계

우선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어머니 참여자는 일반아동 어머니 참여자와 비교, 의사소통태도, 행동통제소, 불안 등 여러 내적 특성 중에서 특성불안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이전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전술하였듯이 말더듬은 아동의 생리적, 발달적 요인 등과 더불어 여러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말더듬아동의 기질적 특성의 경우, 말더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다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말더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Guitar, 2014). 이와 관련하여 말더듬아동의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여러 기질적

특성 중 불안정도, 부정적 정서성 등 일부 특성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Lee & Sim, 2007; Zenner, Ritterman, Bowen, & Gronhovd, 1978). 다만 본 연구는 말더듬아동의 말더듬 발생빈도, 시작시기 등과 같은 요인 등을 통제하여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내적 특성이 말더듬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내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여러 내적 특성 중 타고난 성향, 즉 기질적 성향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은 행동통제소와 특성불안일 것이다. 이에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이러한 두 기질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두 가지 종류의 불안 사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 다른 내적 특성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보다 다양한 기질적 특성과 반응양식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아동의 말더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치료에서는 아동의 유창성 증진을 위하여 상호작용방식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부모의 말더듬에 대한 이해 증진, 죄책감 감소 등을 목표로 한다(Manning, 2010). 이에 이러한 기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아동의 말더듬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즉 내재적 통제소로의 변화는 부모 자신의 불안 정도를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부모상담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치료를 통하여 주체성의 향상 등을 보일 수 있기에 이러한 내적 특성이 치료를 통하여 역시 변화를 보이는지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비록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위와 같은 기질적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치료를 통하여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아동의 말더듬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참여자 특성 및 수에서 제한이 있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아동의 경우, 치료경험 등에 있어서 이질적이었다. 또한 어머니 역시 직업 등에서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 수는 각 집단별 15명, 총 3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여러 다양한 특성과 치료 경험 등이 통제된, 보다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특성만을 분석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 말더듬아동 어머니가 보이는 여러 다양한 내적 특성은 아동의 말더듬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동 말더듬의 결과일 수 있다. 이에 아동 말더듬 기간, 중증도, 여러 다양한 내적 특성 등과 관련하여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내적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의사소통장애 집단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말더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내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인과소와 의사소통태도, 행동통제소, 불안 등을 대상으로 이를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하였다. 하지만 말더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적 특성으로는 완벽주의 성향, 민감성 등이 있기에 이러한 다양한 기질적 특성이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말더듬아동의 여러 다양한 내적, 외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글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기준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내용분석의 경우,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외연구의 경우 70단어를, 국내연구의 경우 50어절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그러한 분석기준의 설정 근거는 부족하였다(Lee, Manning et al., 2011, 2015; Shin & Lee, 2014).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평균 글의 길이는 69-109어절 정도였으나 일부 글 자료의 경우 30어절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분석을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적절한 분석기준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여 보다 타당한 연구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본 연구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글쓰기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인과소를 살펴보았고, 다양한 다른 검사도구를 통하여 행동통제소, 의사소통태도, 불안 등의 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말더듬아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와 비교, 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경우 불안점수와 행동통제소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폰이 말더듬은 사람과 그 가족의 주요 특성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에 말더듬아동의 치료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유창성 증진을 위한 환경 변화뿐 아니라 말더듬에 대한 이해 증진, 부모 자신이 아동의 말더듬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인지적 변화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Craig, A. R., Franklin, J. A., & Andrews, G. (1984). A scale to measure locus of control of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7(2), 173-180.
- Gottschalk, L. A., Winget, C. N., & Gleser, G. C. (1969). *Manual of instructions for using the Gottschalk-Gleser Content Analysis Scales: anxiety, hostility, social alienation-personal disorganiz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ttwald, S. R. (2010). Stuttering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B. Guitar and R. J. McCauley (Eds.), *Treatment of stuttering: established and emerging interventions* (pp. 91-117).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Guitar, B. (2014).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4th ed.).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Hayhow, R. (2009). Parents' experiences of the Lidcombe Program of early stuttering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1(1), 20-25.
- Kim, W., Lee, S., & Sim, H. (2014). Anxiety and communication attitude in school-aged children who stutter. *Special Education Research*, 13(2), 147-166.
- Lee, E., & Sim, H. S. (2007). Temperament of preschool children who stutter and mothers'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2(2), 279-295.
- Lee, K. (2017). Adolescents' locus of causality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as determined by communication locus of causality measure.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4), 784-793.
- Lee, K., Manning, W. H., & Herder, C. (2011). Documenting changes in adult speakers' locus of causality during stuttering treatment using Origin and Pawn scaling.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6(3), 231-245.
- Lee, K., Manning, W. H., & Herder, C. (2015). Origin and pawn scaling for adults who do and do not stutter: a preliminary compariso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45, 73-81.
- Lee, K., Shin, M., & Chon, H. (2011). Treatment experiences of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who stutter: focusing on interaction therapy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Disorders*, 16(4), 478-493.
- Manning, W. H. (2010).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3rd ed.). Clifton Park, NY: Delmar Cengage Learning.
- Millard, S. K., Nicholas, A., & Cook, F. M. (2008). Is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effective in reducing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 Hearing Research*, 51(3), 636-650.
- Shin, M., & Lee, K. (2014). Communication-related and general locus of causality of male adults who stutter.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9(2), 238-248.
- Shin, M., Lee, K., Sung, J. A., Shin, M., Lee, K., & Sung, J. A. (2015). Locus of causality comparison of male adults who do and do not stutter.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0(4), 596-606.
- Sim, H. S., Shin, M. J., & Lee, E. J. (2010). *Paradise-Fluency Assessment II*. Seoul: Paradise Welfare Foundation.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Westbrook, M. T., & Viney, L. L. (1980). Scales measuring people's perception of themselves as origins and paw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2), 167-174.
- Zenner, A. A., Ritterman, S. I., Bowen, S. K., & Gronhvd, K. D. (1978). Measurement and comparison of anxiety levels of parents of stuttering, articulatory defective, and normal-speaking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4), 273-283.



## 국문초록

### 유창성장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인과소와 내적 특성 비교

김민영<sup>1</sup> · 이경재<sup>2</sup>

<sup>1</sup>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청각치료학과, <sup>2</sup>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평가와 치료는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아동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들의 환경 등을 변화시키는 데 부모의 역할이 크므로 부모의 평가와 치료 참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치료 진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인과소와 관련된 국내 말더듬아동 어머니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 사이에 인과소와 여러 내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어머니 15명, 학령전기 일반아동 어머니 1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과소, 의사소통태도 평가, 행동통제소검사, 상태-특성불안 측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폰 점수와 특성불안의 경우 집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말더듬아동 부모의 불안 점수는 행동통제소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높은 폰 성향이 말더듬는 사람과 그 가족의 주요 특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말더듬 치료에서 말더듬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상담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주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말더듬, 어머니, 인과소, 내적 특성

## 참고문헌

- 김우정, 이수복, 심현섭(2014). 학령기 말더듬아동의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특성. *특수교육*, 13(2), 147-166.
- 신문자, 이경재(2014). 말더듬성인 남성의 의사소통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 관련 글쓰기에서의 인과소 비교.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9(2), 238-248.
- 신문자, 이경재, 성진아(2015). 말더듬성인 남성과 일반성인 남성의 인과소 비교.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0(4), 596-606.
-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10).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II*.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이경재(2017). 의사소통 인과소 평가도구로 측정된 성과 연령에 따른 일반청소년의 인과소 차이.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4), 784-793.
- 이경재, 신문자, 전희정(2011). 상호작용치료경험을 중심으로 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부모의 치료경험 분석. *언어청각장애연구*, 16(4), 478-493.
- 이은주, 심현섭(2007). 취학전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해동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2(2), 279-295.

## ORCID

김민영(<https://orcid.org/0000-0001-7640-6590>); 이경재(<https://orcid.org/0000-0002-6811-1212>)